

여수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560억 투입

'5개 분야 63개 사업' 실시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청년 임대주택 200호 공급 정책 참여·제안 '토론 장' 도

여수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63개의 사업을 마련하고 청년 정책에 560억원을 투입한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16개 사업), 주거·정착(21개 사업), 문화·복지(10개 사업), 소통·참여(9개 사업), 교육(6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63개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시는 '청년 맞춤형 인턴 운영'과 '청년 도전 창업 지원사업'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청년 맞춤형 인턴 운영'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400명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는 청년 공공근로 일자리 86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어 '여수산단 청년관제요원 운영' 사업을 통해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할 청년을 채용하고, 중소기업과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청년도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와 창업 멘토링을 제공한다.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서는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마련했다.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여수시 테크니션스쿨'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여수산단 취업률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인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2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해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여수로 이사 온 청년 1인 가구에는 생활필수품이 포함된 '청년 전입 웰컴박스'가 제공되며 저축 금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과 청년들의 복합문화공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등도 추진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청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문화생활과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술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거리문화 한마당'을 개최해 지역 곳곳에서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자기 계발을 돕고, '여수 365 아일랜드 청년유람단' 프로그램 운영 등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탐방하고 교

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 영화, 전시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연간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도 확대된다.

시는 '청년정책포털'을 구축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e-음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국동지구에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더욱 활발한 청년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입주기업 국제·지방세 감면 등

장흥군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2년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정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세제 감면, 계약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돼 5년간 지원을 받아오다 올해 2월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지정 연장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지방세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체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과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환경 개선, 네트워크 운영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투자유치 제고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

고흥군,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내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고흥군은 25일부터 오는 3월14일까지 3주간 민원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군민이 민원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흥군 민원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고흥군)'에 접속해 민원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 제공,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실 내 △협합측정기, 발 마사지기 등 건강관리 코너 △큰 글자 책 비치 어르신 쉽터 △영유아용 도서, 장난감 등 어린이놀이방 △민원인 전용 PC·팩스·프린터기 전자민원센터 마련 등 민원 편의공간을 개선한 바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문덕면 희망드림협의체 지역 자원 연계 프로젝트인 '발그레 다향'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편백수를 활용한 건식 족욕을 즐기고 있다. 보성군 제공

순천시 '생활권 도시숲' 조성 추진 신대 옥녀봉 등 총 3개소

순천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장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폭염을 완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도시숲 조성을 위해 도비 3억5000만원과 시비 3억5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용당동 삼산, 신대 옥녀봉, 서면 강청수변공원 등 3개소로, 각 지역에 산림공원, 산림조경숲, 생활환경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이용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문덕면 희망드림협의체, '발그레 다향'

보성군은 최근 문덕면 희망드림협의체가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그레 다향' 행사를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발그레 다향'은 문덕면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치유마을 청정가네의 차 족욕 체험장을 활용

해 지역 자원과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자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편백수를 활용한 건식 족욕과 다도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상호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발그레 다향' 프로그램은 1회당 1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반기까지 총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정화 문덕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프로젝트 가동

민간플랫폼 도입 등 5개 분야 20개 정책

고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맞춤형 홍보, 범국민 기부 참여,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고흥형 기금사업 추진,

기부자 예우 시책 등 5개 분야의 고흥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기부자 편의도모를 위한 민간 플랫폼 도입 △고흥 출신 출향인(출향인 2세) 네트워크 강화 △고흥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지역 특색 살리는 주민 주도형 지정 기금사업 발굴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추가 설치 등으로 20개의 시책을 확대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지난 2년간 고향사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관·난관 복원 등

여수시는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과 '영구적 불임 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55세 이하 남성 또는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관 복원은 최대 50만원, 난관복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구적 불임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생식 건강 손상 등 향후 임신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부형·전남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 소득, 연령 제한 등을 폐지했으며 '난자 냉동 시술비'는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659-4265, 428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신규 사업으로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